

전주형 인구정책 방향 · 과제 논의

전주시의회 전주인구정책연구회, 지방소멸 · 인구감소 대응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세미나’ 개최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의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회장 김동현)와 전주시정연구원이 18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주시정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주형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미래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발돋움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박승규(군산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인구소멸시대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연계방안과 문동진 연구위원(전주시정연구원)의 전주시 인구변동의 특성 및 향후 정책방향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승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구정책 개발 플랫폼 구축, 지역별 주요 인구정책과 산업, 주제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문동진 연구위원은 전주시 인구변동의 특성과 양상, 특성, 환경 및 여건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정책수요, 지방 소



전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이 18일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주형 인구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김동현 의원(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과 서영미 교수(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동영 센터장(전북연구원 인구 청년지원연구센터), 정수경 소장

(즐거운도시연구소), 문민주 기자(전북일보)의 토론도 이어졌다.

김동현 의원은 “특정 세대를 넘어 평생 함께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과 다문화 정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제안했다.

서영미 교수는 “인구정책으로 바라본 저출생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사회 진출과 결혼, 출산, 육아 등 전 생애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인구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영 센터장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 혁신인구 유입을 위한 장소기반사업 육성, 반일제 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제도적 보완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 및 지원 강화, 생활인구 전략 등 인구증대 및 인구감소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민주 기자는 “전주 인구 문제 새 단면에 매달린 전북 정책 대전환부터”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연대, 정주 여건 문제, 획기적인 출산 정책의 변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김동현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위기”라며 “전주에 산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전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봄맞이 ‘정원엔오브제’ 전시회 개최

전주정원문화센터, ‘도시에 자연을 심다’ 주제 다양한 작품 전시

전주시 정원문화와 확산 거점인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시민들이 자연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봄맞이 ‘정원엔오브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번째 전시회에 이어 전주정원문화센터가 마련한 두 번째 전시로, ‘도시에 자연을 심다(정원엔오브제)’를 주제로 완성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 정원 리더를 발굴하고 전주 정원문화와 관련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트리하우스 행복’과 ‘전진난만한 웃음, 동심을 빛다’의 두 가지 콘셉트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트리하우스 행복’ 공간은 봄을 알리는 진달래꽃과 함께 청정 정원도시 전주 시민들에게 심신 치유



전주시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봄맞이 ‘정원엔오브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다.

또한 ‘전진난만한 웃음, 동심을 빛다’ 공간은 웃음과 즐거움, 순수한 기쁨을 선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과 정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재발견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정원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시

민들이 정원을 통해 자연 속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를 꾸준히 기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옥정원의 꽃과 나무 △정원 속 작은 음악회 △봄에 만나는 구근식물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 유사식물 비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시는 현재 센터 누리집(gardenoc.jeocf.kr)을 통해 교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8648)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정원문화센터와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13일 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대에서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을 주제로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산업전과 정원 전시, 정원문화 프로그램, 정원 조성 시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우기철 대비 가로등 안전점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우기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상습 가로등·보안등 고장구간과 가로등이 노후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누전차단기와 접점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전 애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촘촘한 안전 점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구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제어기함과 등주의 절연상태 및 접지 △누전차단기와 접점기의 작동 여부 △등주 점검구 내 전선의 이

상 여부 등 누전에 의한 갑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구는 또 점검 결과에 따라 누전이 검출된 구간의 보수 및 노후화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구역은 우선순위를 정해 공사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습기가 많은 우기철이 되면 누전 등으로 갑작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정비기간 이외에도 가로등의 누전 요인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효자4동 자율방재단,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나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자율방재단(단장 이진열)에서는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자율방재단 회원들은 봄을 맞이하여 관내 공원, 주택가, 학교 주변 등을 돌며 겨우내 쌓인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효자4동 이진열 단장은 “아침 일찍부터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해 주신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동네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자4동 자율방재단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강설시 제설작업, 장마철 대비 우수받이 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숙 동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정화활동에 애써주신 자율방재단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동에서도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쾌적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호성동 통장협의회,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펼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 통장협의회(회장 이영수)는 18일,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관내 곳곳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통장협의회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의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관내 쓰레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및 불법광고물 수거 등 환경정화에 힘썼다.

이영수 호성동 통장협의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결한 호성동을 만들기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성동 통장협의회는 주기적으로 관내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으며, 농가 일손돕기,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